

#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



어뉴텍코리아(주)/대표이사 박청정

**작**년에 여의도지역모임이 발족되고서 강남지역, 강북지역으로 지역모임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전부터도 매월 모이는 조찬세미나로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가졌던 터라 지역모임을 건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것이다. 조찬세미나는 이른 아침에 모이는 것이 되어서 그런지 참석률이 좀 저조한 편이다. 모시기 힘든 유명한 연사도 아침 일찍 나오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분위기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조찬세미나는 끝나기가 무섭게 흩어진다. 아침시간에 쪼달리다 보니 서로 인사도 하는 등 마는 등 헤어지고 만다. 어쩌다 누군가가 차 한잔 하자며 소매를 이끌라 치면 몇몇이 따로 모이기도 하지만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그런지 여유들이 없어 보인다.

지역모임은 점심시간에 모인다. 그래서 그런지 참석자들이 많다. 어차피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 한시간 같이 이야기하며 점심식사 하는 것이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 우선은 누군가가 돌아가면서 점심 값을 부담하고 있지만 회비

를 견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몇 번 모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난다. 이왕 모이는 모임이니 생산성을 높여 보자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는 정보 교환이다.

솔직히 말해서 자주 만나는 회원이지만 그 회원의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처럼 직장이 이동이 심하고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다양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저 회원이 있는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이나고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 보아도 옆 사람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참석한 회원은 자기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

회사 소개서나 제품 설명서를 갖고 와서 나눠주면 더욱 좋겠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다. 물론 비밀에 속한 정보일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든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정보는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둘째는 참석여부의 사전 연락이다.

모임이란 정시에 시작하여 약속된 시간 내에 끝내주는 것이 참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다. 끝난 시간을 미리 통보해 주면 좋겠지만 점심시간이면 대체적으로 한 시간 저녁시간이면 한 시간 반에서 길어야 두 시간 내에 모임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작 시간이다.

먼저 온 사람끼리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 것(?) 같고 또 선배되시는 분들이 아직 안온 경우는 더 더욱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있지만 좀 근대적 사고가 아닌가 한다.

늦게 참석할 경우가 생기면 늦으니까 먼저 시작하라고, 또 불참인 경우는 불참한다는 이유를 간단히 주최측에 이야기 해 주면 좋으려면 그렇지 목한 것이 통례이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참석한 안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되고.

더욱이 미안한 경우는 장소 예약 관계다. 참석자가 예상보다 적은 경우는 음식점에 미안하다는 양해로 되지만, 예약인원 보다 더 많이 참석한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는 수가 많다. 방을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좌석에서 혼자 식사하도록 해야 하는 주최측의 애로사항을 이해해서 부디 참석 여부를 사전에 연락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셋째는 신입회원 영입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

신입회원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후보를 같이 대동하고 참석해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분위기 파악도 시키고 하면 좋을 것 같다. 협회 소개를 개인적으로 하자니 좀 미진한 것 같고 회원들이 어떠한 분 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지역 모임에 같이 참석해서 어울려 보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 층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여성회원을 참여 시킬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모든 회원은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한다.

어떤 모임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세 번씩이나 한번도 한마디를 안 한다면 그 참석자는 다음부터 초청을 안 한다고 한다. 남의 정보만 듣고 가기 보다는 참석한 사람 모두가 무언가 적어도 한마디씩은 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참석에 따른 예의가 아닌가 싶다. 참석하기 전에 무슨 기여를 할까 하고 조금만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는 준비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모임이란 모름지기 기다려지고, 참석해 보고 싶어지고, 남에게 참석을 권유해 보고 싶어질 때 그 모임이 살아 움직이는 모임이 될 텐데, 우리 모두 조그만 희생정신으로 준비성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보기를 고대해 본다.